

석불 보면 푸근해집니다

석불사진 550여장 책으로 엮은 이호섭 박사

“그저 석불이 좋아서 쫓아다니지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언제나 석불을 보고 나면 마음이 푸근해지고 고요해짐을 느낍니다.”

한국석불문화연구원(회장 이근후)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호섭 박사(73, 이호섭이비인후과의원·사진)가 지난 20여년간 전국 550여 곳의 석불을 답사하며 찍은 사진을 담은 <천년의 미소-한국의 석불을 찾아서>를 펴냈다. 직접 찍은 수천여 장의 석불 사진 중



주말마다 전국 누비며 20여년간 석불 답사

550여 장을 고르고 석불 답사를 떠나는 사람들을 위해 약도와 석불의 조성연대, 특징 등을 간단히 정리해 덧붙였다. 불자는 아니지만 처음 석불을 보게 됐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는 이 박사는 이후 주중에는 서울 영등포에 있는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고, 주말이면 전국을 누비며 ‘천년의 미소’를 찾아다녔다. 하지만 석불을 찾기가 생각만큼 쉽지는 않았다. 당시만 해도 지정문화재에 대한 표지판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동네 주민들조차 석불의 위치를 모르는 경우가 허다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 점심도 빵으로 대신하며 4-5시간씩 산 속을 헤매다 겨우 석불을 발견하기도 했다. 그의 말대로 석불에 대한 끝없는 애정과 끈기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다.

“인도나 중국,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의 석불은 한국인의 자비와 정감을 담고 있습니다. 저마다의 얼굴과 수인(手印)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석불들에서는 은은하고 고요한 미소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늘날 석불이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고 보호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불상이나 문화재와 달리 야외에 모셔진 석불은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거나 지역 주민들의 무관심으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도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답사를 다니며 불상을 받치는 대좌를 건물 축대로 사용하는 경우나 타종교인들에 의해 훼손되는 경우도 목격했다고 한다. “석불이 불교미술이라고 해서 불자들만의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소중한 문화유산이죠. 이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더욱 필요할 시점입니다.”

앞으로도 시간과 건강이 허락되는 한 더 많은 석불을 친견하고 싶다는 이 박사는 “이 책이 석불을 찾아나서는 사람들에게 소중히 나침반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혔다.

여수령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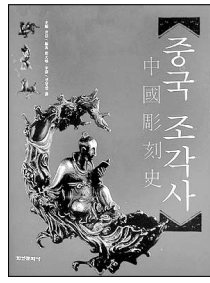


천년의 미소-한국의 석불을 찾아서 이호섭 글/사진 문장출판사 | 9만5천원

조각으로 읽는 중국불교

중국 조각사

랑티앤웅·리정 지음
전정범 옮김 | 2만5천원



돌이나 나무를 깎아 만드는 ‘조각(彫刻)’의 역사는 깊고도 유구하다. 신석기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한 손에 쥘 수 있는 토우(土偶)부터 수십 미터에 이르는 불상까지, 인류는 수많은 재료를 이용해 상징물을 만들어왔다. 그 시대 사람들의 애환과 염원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조각사는 그나라 역사와 다름이 아니다.

<중국 조각사>는 조각상을 통해 중국 역사의 흐름을 짚어보는 책이다. 중국 닝샤(寧夏)인민출판사가 2000년 11월에 발간한 <전체중국조소예술사>를 전정범씨(중국대 고고미술사학과 강사)가 우리말로 옮겼다.

많은 미술사 개설서들이 학술적인 설명에 치중할 것과 달리 이 책은 500여 장에 달하는 사진을 통해 조각사의 흐름을 볼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각 시대별 조각사의 특징과 주요 미술유예품 등을 간략히 실었고 ‘조각상을 통해 본 말 품종의 변천’ ‘후이취펑 무덤석각의 배치’ ‘어떤 의의가 있는가’ 등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독자의 궁금증을 풀어준다.

특히 책의 많은 지면을 할애해 설명하고 있는 불교조소는 중국 고대조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인도에서 전래된 불교가 오랜 역사를 거치며 다양한 예술작품으로 형상화됐고 이는 중국만의 예술적 특징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책에서는 불교가 인도로부터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국으로 전파되는 경로를 따라 건립된 둔황, 운강 등의 석굴사원들과 위진남북조시대의 단독불교조소, 불교미술의 전성기를 이룬 수당시대의 불상 등이 소개된다. 또한 당 말기 이후부터 오대 및 원·명·청나라를 거치며 불교예술이 쇠퇴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불교의 중국화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을 무렵 조성된 북방 금탑사의 미륵불상과 운강석굴의 좌불, 뉴욕시립박물관에 소장돼 있는 북위시대의 금동석가인상 등 다양한 불교 조각상의 모습을 사진으로 감상할 수 있다.

지은이들은 중국조소의 특징을 크게 세 가지로 꼽는다. 첫째는 사



중국 운강석굴의 좌불과 입불. 북위시대(460~465)에 조성된 이 불상은 웅장하면서도 정교한 조각수법을 보여준다.

물의 형식보다 그 내용과 정신에 치중해 표현하는 사의성(寫意性)과 비사실성이다. 이는 자연과학의 정확함과 사실성 대신 정신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지은이들은 설명한다. 둘째는 조소로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려운 눈이나 몸의 장식, 의복의 무늬 등을 붓을 사용해 그린 회화성(繪畫性)이다. 셋째는 장식성이다. 조소는 그 자체가 장식품의 용도로 만들어졌으며, 특히 종교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불교조소는 일정한 장식 특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책을 옮긴 전정범씨는 “이 책을 읽음으로써 조소예술사에 대한 중국학계의 입장을 알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행복은 바로 여기에

<깨어 있는 삶으로의 여행>은 위빠사나의 세계적 권위자인 조지프 골드스타인이 그동안 저술한 그의 책에서 고갱이들만을 추려 정리한 ‘명상수행 지침서’다. 흔히 명상이라고 하면 값비싼 명상센터에서 하는 여가생활쯤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지은이는 일상에서의 호흡의 움직임, 몸동작, 의식, 감각의 연쇄 작용 등을 관(觀)하여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한다.

이 책의 특징은 알기 쉬운 어휘로 명상법을 소개한다는 것. 때문에 독자는 마치 지은이와 직접 대화하는 듯한 느낌으로 책을 읽어갈 수 있다. 모두 5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처음 위빠사나 수행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조언으로 시작해 쉽고 재미있게 우리의 몸과 마음의 본성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의 명상 방법을 선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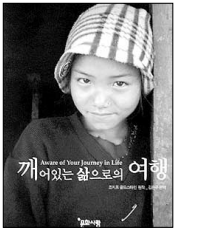
1~3장이 초보자에게 나타나는 수련 중 장애 극복법을 제시해 주고 있다면 제4장 ‘명상을 위한 시간’, 제5장 ‘마음의 탐구’는 깨달음에 다다를 무렵의 자만심과 욕심으로부터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알려준다. 다시 말해 ‘생활 속에서 순간순간을 깊이 느끼고 의미함으로써 전체적인 깨달음에 이른다’는 것이다. 그 구체적 방법은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들을 처음부터 의식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다.

책을 지은 조지프 골드스타인은 1974년부터 통찰력 명상을 전수하고 있으며 1989년 동료 및 제자들과 불교 연구를 위한 ‘바레 센터’를 설립했다.

노병철 기자 sasamir@buddhapia.com

깨어있는 삶으로의 여행

조지프 골드스타인 지음
김은주 옮김
문화사랑 | 8천5백원



금주의 베스트도서 10

책방 역시 아님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용서	달라이라마	오래된미래
2	입보리행문	산티 데 마	하연연꽃
3	현대심리학으로 풀어본 대승기전론	서광 스님	불과
4	오체부지	한 경 해	반디미디어
5	불자의 가족사망과 기도법	우물 스님	효림
6	보살예수	김희성	현암사
7	禪 너는 누구냐	현대불교신문	여시야문
8	도심속의 도인 석주 칸스신	김현준	효림
9	말씀 부처가 보이는 길	정화 스님	이른아침
10	물 속을 걸어가는 달	김진태	학교재

도서 안내: (02)737-06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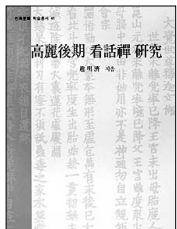
선수행 문답집, 선(禪)을 묻는 그대에게 1억걸 무명의 계층을 막힘없이 시원하게 풀어줄 선수행에 대한 문답집! 건강대선사님의 인가 제자 대원 문제현 선사님이 일체종자를 통달한 안목으로 통쾌하게 답하였다.

☎ 02-522-0122
www.zenparadise.com

고려불교 몰락엔 간화선이 있었다?

고려후기 간화선 연구

조명제 지음 | 해안 | 1만8천원



‘고려불교는 왜 몰락했을까?’

<고려후기 간화선 연구>는 이 같은 의문에 대한 답을 모색해 보는 책이다. 또 중국 원의 간섭기를 거쳐 권문세족과 결탁한 불교계의 부패와 타락, 주자학을 수용한 신봉사대부가 역성혁명을 통해 사회적 모순을 개혁했다는 기존 연구시각에도 이의를 제기한다.

때문에 책은 고려불교의 몰락 이유와 배경을 ‘복선적’으로 이해할 것을 주문한다. 고려불교가 불교사 흐름 속에서 갖는 한계는 무엇인지, 주자학 수용과정에서 어떤 대응을 했는지를 함께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 일반 교토대에서 유학 중인 지은이 조명제씨는 이런 연관성을 고려후기 선불교의 흐름을 주도한 간화선에서 찾고 있다. 고

려중기, 원 간섭기, 고려말 등으로 나뉘는 각 단계별 간화선의 사상적인 전개과정을 짚어보는데 많은 지면을 할애한다.

특히 조씨는 간화선의 수용, 주자학과 관계를 탄탄한 사료분석으로 추적한다. 먼저 13세기 지눌과 혜심 선사가 전개한 수선사(修善社) 결사운동을 간화선 형성시기인 중국 송대와 연결해 접근한다. 간화선 수행체계를 확립한 대혜종교 선사도 당시 금나라와 맞선 남송 사대부들과 사상적 접점을 찾았던 것처럼, 지눌 선사의 수선사 결사운동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또 조씨는 간화선 일본도 경향을 고찰하면 <몽산법어(蒙山法語)>와 <선요(禪要)>의 수용과정을 설명하면서, 불교가 새로운 단계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차단하는 한계도 조래했다고 지적한다.

조씨는 이와 함께 당시 불교계와 사대부간의 관계가 절대적인 대립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물론 선종의 절대화 경향이 대두되기는 했지만, 선승과 사대부들은 활발한 교류와 간화선을 비롯한 선사상에 대한 상호소통을 이어왔다고 설명한다. 김철우 기자

하기 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상담문의 및 책자 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0311334-9490, 334-9491 | 아간: 0311706-3060

스님과 불자님! 지긋지긋한 치아

美國브라이트로 7일만 닦으시면 고생 끝!



스님? 세상에 제일 고봉스럽고 참기 어려운 것이 이가 아픈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스님만은 믿으세요. 저는 대전에 사는 보살입니다. 대전에 있는 사찰을 방문 하였을때 스님과 함께 공양을 하게 됐는데 1년전부터 치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다가 양쪽 어금니를 뽑고나니 더 큰이도 흔들리며 찬물도 못먹고 하루하루 진통제에 의존해 왔고 병원에 자주 가야만 했습니다. 스님과 공양에 이가 아파 할 법치 못하는 것을 본 스님께서 미국구강학회에서 추천한 브라이트치아를 주시면서 아침저녁 7일만 닦으면 이가 좋아진다고 해서 마음속으로 병원을 다녀도 효과가 없는데 치아가지고 뽀얗고 씹히면서 스님께서 주신거라 아침저녁 사용하면서 4일째 되는날부터 진통제를 먹지 않아도 되고 찬물을 먹어도 이가 시렵지 않는 놀라운 효과를 보았습니다. 일반치아처럼 7일정도 사용하면 입냄새는 물론, 10일정도 사용하면 풍치, 잇몸부러, 잇몸농종, 찬음식과 뜨거운 음식을 드실때 통증이 깨끗이 없어져서 누런이가 하얀이로美白도 됩니다.
* 五福중의 으뜸가는 치아를 보존하는데 기적의 약초 치약으로 충분합니다.
가격은 50,000원입니다.
수입판매원 **금강닥터사**
TEL: (02)2271-1441 | 농협: 360-12-046446 최능우

이것이 명품이다!
명품은 말하지 않습니다. 심마니 토종오가피는 산삼배양근이 함유된 제품으로써 그 효능과 품질로 말합니다.

심마니 토종오가피 시음 무료체험
전화주시면 일천분에 한하여 심마니토종오가피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무료체험의 즐거움과 건강의 기쁨을 누리보세요.

심마니 토종오가피

중년의 건강과 활력을 부모님에게는 건강한 노후를 자녀에게는 몸과 정신을 튼튼하게 가족 건강이 행복의 최우선입니다. 심마니 토종오가피가 지켜드립니다.

상담문의 및 무료자료배송 02)447-9114 **이현풍 F&B HYUN PUNG F&B CO., LTD.**